



■ 라틴아메리카의 시공간과 근대의 조우 - 『라틴아메리카의 근대를 말한다』

송 상 기



언제부터 라틴아메리카는 근대적이었는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근대성의 징후가 언제부터 나타나는가에 대한 질문은 적어도 엔리케 두셀에게는 간명하지만, 영국의 라틴아메리카 역사학, 인류학, 지리학, 정치학, 문학전공 교수들이 주축이 된 이 책의 편집자들과 기고자들에게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두셀의 주장에 의하면, 근대세계체제는 유럽의 신대륙 정복 후 대서양을 통한 대규모 자본의 이동이 시작된 1492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고, 라틴아메리카는 근대의 그림자로서 유럽의 근대의 빛을 태동하기 위한 토대를 이루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물론 199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을 후기자본

주의의 증후로 이해한 후 라틴아메리카의 포스트모던 시대의 도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가 언제부터 근대적이었나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과 자본주의의 성장과 유비시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라는 정치경제를 결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근대성에 대한 설명이 헤게모니적이고 추상적인 자본주의적 힘에 대한 설명으로 환원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경제 뿐 아니라 사회, 문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구 근대화의 패러다임과 달리 표출되고 있는 다양한 변이는 자본주의의 다양성 뿐 아니라 지방적/지역적 조건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이를 앨런 프레드와 마이클 와츠는 “변형된 근대성” 혹은 “다양한 근대성”이라 명명하기도 한다.

근대에 대한 개념 정의는 각 학문 영역에서 상이한 잣대를 지니고 있고, 같은 학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가령 철학의 경우 리오타르와 하버마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근대에 대한 해석 역시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근대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시기구분을 포괄적으로 조망하려면 상이한 학문영역에서 근대에 대한 투시를 펼쳐 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근대의 세례를 받은 각 제반 학문의 근대에 대한 투시 역시 인류학과 사회학의 경우에서처럼 서로 상반된 입장이기에, 이들의 투시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환원시키려는 행위는 도로에 그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은 근대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라틴아메리카 담론의 역사는 근대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의 역사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근대는 크게 봉건시대를 넘어섰다는 시기적 구분으로부터 연유되지만 개인주의의 태동과 계몽정신, 자본주의의 성장 그리고 도시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근대는 목적론적이고

발전주의적 시간관과 공간의 집적화를 포괄하는 시공간으로 이해된다. 지리학자 세라 레드클리프는 자본주의의 전 지구화 과정과 근대 국민국가로 표현되는 정치권력이 근대성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구체화시키는 기제로 파악한다. 경제와 정치권력은 근대성의 핵심장소에서 항상 작용하고 있고, 자본주의는 라틴아메리카의 하위지역의 차별화와 불균등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신체, 도시, 국경의 공간의 사차원적 지도의 역동적 추이는 경제지표와 같은 이차원적 근대성 지도로는 설명될 수 없는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동력에 대한 입체적인 고찰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메소아메리카의 우주는 달력을 통한 시간에 대한 통찰을 통해 설명되었는데, 1492년 이후 라틴아메리카는 지도의 국경과 등고선, 인구의 집적도에 의해 설명되어진다고 볼 때, 원주민 문명 시대의 시간성에 집착하던 세계관은 이제 근대 이후 공간의 재배치에 따른 차이와 차별의 등고선을 통해 세계화의 지도 속에 편입된다. 고대 멕시코인의 운명과 자연적 매개인 나우알(nahual)을 결정짓던 시공간은 이제 생활세계의 위도와 경도에 따른 차별화된 근대성의 좌표에 의해 해석된다.

이제 근대성의 대칭개념으로 알려진 ‘전통’이라는 것도 경계와 맥락의 변동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근대적이고 혼종적인 것이므로 근대론자들의 근대/전통에 대한 이분법적 긍정적/부정적인 가치체제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사회인류학자인 피터 웨이드는 주장한다. 톰슨은 19세기 중반 멕시코 푸에블라시에라의 사례분석을 통해 공적 영역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성장하다가 포르피리오 디아스 정권의 국가적 근대화 기획 속에 편입되고 묻혀 버리는지를 설명한다. 근대성의 기운이 권위주의적 반동에 봉착하여 쇠퇴하는 사례를 통해 목적론적이고 직선적 패러다임에 대한 일반화가 지니는 오류를 지적한다. 이러한 점에서 앨런 나이

트는 목적론과 척도화의 위험에 맞서는 역사학적 세심한 주의와 근대성의 개념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고 설파한다.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에서 근대 내지 근대성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이 아니고 20세기 후반 학문용어로 쓰이거나 정치적 구호로 쓰이기 시작했다. 정치적 담론에서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던 근대, 근대화의 담론은 반대론자들로부터는 그 구호가 또 다른 포퓰리즘의 이면이라고 공격받기도 하였다. 근대가 서구의 계몽사상의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자칫 계몽이라는 것은 서구의 비서구에 대한 포섭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고 라틴아메리카의 독자적인 근대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봉쇄해 버린다. ‘근대’라는 용어에 대한 기존의 서구적이고 수입된 것이라는 선입관을 버리고 창조적이고 자생적인 라틴아메리카적 성찰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문예비평가 윌리엄 로우의 페루의 근대성 사례를 통한 분석은 진보의 서사와 선형적 사유로는 과거와 현재만이 중첩되고 현재 완료시제가 부재한 페루의 시공간을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마리아테기의 주장처럼 마르크스의 역사 단계론을 페루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에 오히려 벤야민이 본 메시아적 시간을 통해 과거를 미래에 투사시킴으로써 구원하고, 결핍의 역사를 치유하려는 의지가 중요함을 일깨우는 로우는 페루의 주요 문학 텍스트 분석을 통해 순차적 분석이 아닌 비선형적 시공간을 재현하는 글쓰기 방식을 통해 페루의 근대성에 관한 시간성을 새롭게 재편성하고자 했다. 브라질 소설가 마샤두 지 아시스의 작품에 대한 분석과 쿠바영화의 역사성에 대한 에세이는 각기 주변부로부터 글쓰기라는 현실과 극장을 국유화한 현실이 근대를 사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상상적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전유하고 소설과 영화의 본래적 가치를 회복하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경쟁력 있는 문화 상품이 세계화 과정에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과 남의 문화적 교환이 쌍방향이지만 결코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네스토르 가르시아 칸클리니는 미국 영화산업의 자국보호 예를 통해 설명한다. 이러한 불균등은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로부터 야기되고, 다문화주의라는 것도 권력이 북쪽의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피라미드 체계에 의해 관리되는 정전화 작업의 산물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이러한 저질의 범람을 막아서는 방법은 차이가 존재하는 사람들끼리의 소통, 불평등과의 투쟁, 누구나 상호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이렇듯 라틴아메리카의 근대성에 대한 역사학과 사회과학적 관점들로 구성된 네 편의 논문과 문학비평과 문화연구의 관점들로 구성된 네 편의 글을 엮은 『라틴아메리카의 근대를 말하다: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성찰』은 근대성에 대한 혁명적이고 대안적 관점을 선언적이고 계시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라틴아메리카의 근대에 대한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근대의 선형적 시공간에 대한 비선형적 사유와 지역 역사들이 (탈)근대의 지형도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가늠하고자 한다. 그 가늠의 소박한 단초는 라틴아메리카는 언제부터 근대적이었나 하는 풀리지 않는, 풀릴 수 없는 질문을 다시 던지는 것으로 회귀한다. 이 책은 보다 입체적이고 풍요로운 근대와 탈근대에 대한 입체적 사유의 실마리를 위해 끊임없이 앞서의 겸손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